

유아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서 한국 어머니가 보인 문화적 주의 편향성*

Received: Jan 15, 2025
Revised: Feb 27, 2025
Accepted: Feb 27, 2025

김재현¹, 최영은²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¹,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yochoi@cau.ac.kr

Korean Mothers' Cultural Mode of Attention in Mother-toddler Interactions

Jaehyeon Kim¹, Youngon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M.A.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²

* 이 논문은 202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발달
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김재현(2025)의
석사 논문을 기반으로 함.



© Copyright 2025,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은 북미 문화권 성인에 비해 전경보다는 배경과 같이 맥락적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전체적 주의 편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은 양육자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해 온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살펴보고, 양육자가 보인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18~36개월 자녀의 관계 추론 수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83쌍의 어머니-자녀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어머니는 개인주의와 더불어 수평적 집단주의 가치도 여전히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면 묘사에서는 첫 언급에서 배경보다 전경을 더 강조하는 양상을 보여 분석적 주의 편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나 주의 편향성은 자녀의 관계 추론 수행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과의 관련성이 관찰되어 이 무렵의 발달에는 아직 문화적 영향이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문화적 주의 편향성, 문화적 가치, 인과관계 추론,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같은 바닷속 장면을 묘사하라는 과제를 주었을 때, 북미의 성인은 물고기와 같이 장면의 전경 (foreground) 요소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전경 요소를 더 많이 묘사한다(Masuda & Nisbett, 2001). 이에 반해 일본의 성인들은 주변의 수초나 작은 생물체, 주변 바다와 같이 배경(background) 요소에 중점을 두어 묘사하는 차이를 보인다(Masuda & Nisbett, 2001). 일본 성인이 보이는 전경보다 배경이나 맥락 정보에 더 민감한 경향성은 중국, 대만, 한국과 같이 개인적 가치보다는 관계적 가치를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관찰되었다(Chua et al., 2005; Masuda, 2017; Masuda & Nisbett, 2001, 2006; Masuda et al., 2008; Miyamoto et al., 2006; Rhode et al., 2016; Senzaki et al., 2014, 2016; Varnum et al., 2010).

이와 같이 대상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때 관찰된 문화권 간의 차이를 문화적 주의 편향성(cultural attentional bias)이라고 한다(Masuda & Nisbett, 2001). 특히 전경을 이루는 개별 물체 하나하나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을 분석적 주의 편향성(analytic bias) 혹은 분석적 사고(analytic thought)라고 하고(Masuda & Nisbett, 2001; Masuda, 2017), 배경과 같은 맥락적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은 전체적 주의 편향성(holistic bias) 또는 전체적 사고(holistic thought)라고 한다(Masuda, 2017).

Masuda(2017)는 인간의 주의 처리 과정에는 보편적 기제도 작동하지만 특정 정보에 대한 주의 처리를 집행할 때 주의의 하향처리(top-down process)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Masuda, 2017).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

화권으로 알려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들에게서는 맥락 정보에 더 민감한 전체적 사고나 주의 편향성이 나타나고, 개인의 독립적 표현과 자율적 가치를 중시하는 북미의 문화권에서는 분석적 사고와 주의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Masuda, 2017).

문화적 가치는 발달 과정에서 양육자를 통해 아동에게 전수되고(Rogoff, 2003) 아동의 인지나 주의 처리에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Imada et al., 2013; Senzaki et al., 2016). Senzaki와 동료들(2016)은 캐나다와 일본의 어머니가 4~9세 자녀에게 장면을 묘사할 때 각기 분석적 편향성과 전체적 편향성을 달리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대 학생을 대상으로 관찰된 기존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문화 전달자인 양육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enzaki et al., 2016).

양육자가 가진 문화적 편향성의 차이는 아동의 주의 처리 경향성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4~9세 아동은 미국의 또래보다 장면 묘사에서 전경보다는 배경에 더 집중하여 언급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4세부터 관찰되었으나 다른 맥락적 민감도를 측정하는 과제들의 수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간 차이는 6세 이후에 더 명확히 출현하는 것으로 보였다(Imada et al., 2013).

아동에게서 관찰된 문화적 편향성은 양육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맥락에서 더 강하게 관찰되기도 하였다(Senzaki et al., 2016). 캐나다와 일본의 4~6세와 7~9세 아동은 모두 혼자서 장면 묘사를 할 때는 문화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7~9세 아동은 양육자와 함께 장면 묘사를 할 때는 두 문화권 모두 양육자와 같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보였다(Senzaki et al., 2016). 이러한 결과는 발달

과정에서 아동이 문화적 경험을 쌓고 내재화하면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발달하게 되며, 문화 전달자인 양육자와 사회적 상호작용할 때 편향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주의 편향성은 아동의 주의 처리와 더불어 아동이 특정 사물 간의 관계를 인식하거나 개별 사물의 속성을 파악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rstensen et al., 2019; Jurkat et al., 2021). 특히, 분석적 편향성은 자녀로 하여금 개별 물체에 주목하도록 하여 개별 물체 특성 처리를 촉진하는 반면 물체 간 관계 파악을 돕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전체적 편향성은 맥락 처리를 도와 물체 간의 상대적 관계성 파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Carstensen & Walker, 2017; Carstensen et al., 2019).

일본과 미국 4세를 대상으로 대상 물체의 개별 속성보다는 물체 간 관계를 유추하도록 한 유추 과제 수행 비교에서 일본의 4세는 미국 아동보다 더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Kuwabara & Smith, 2012). 또한, 특정 사건(예, 음악 재생)의 원인이 되는 물체의 관계(예, 한 쌍의 같거나 다른 블록)를 파악하도록 하는 관계 추론 과제 수행에서도 중국의 3세 아동이 미국 3세 아동보다 더 우수한 수행을 보여주었다(Carstensen et al., 2019).

비록 두 연구는 직접적으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아동의 관계 추론을 촉진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못하였으나 두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분석적 문화권으로 고려되는 미국 아동에 비해 전체적 문화권으로 고려되는 일본과 중국의 아동이 더 우수한 유추 및 관계 추론 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이 경험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아동의 주의 처리를 넘어 관계 추론 수행도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여 개인의 표현보다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중심적이고, 집합 주의적인 문화권으로 고려되어 왔다(Rhode et al., 2016). 한국 문화권에서 성장한 성인들은 일본 성인과 유사하게 주어진 장면 묘사에서 전경보다는 배경을 언급하는 경향이 높았다(Rhode et al., 2016; Tajima & Duffield, 2012). 심지어 Rhode 등(2016)의 비교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이 영국만이 아니라 중국의 성인보다 배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언급하는 경향이 커 전체적 주의 편향성과 더불어 맥락 정보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본의 자료에 비하여 한국 성인의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성인 대상 연구는 Rhode 등(2016)과 Tajima와 Duffield (2012)의 연구만 있었고, Masuda와 Nisbett (2006), Miyamoto 등(2006)과 Masuda 등(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성인들이 동아시아 문화 집단의 일부로 참여하였기에 한국 성인, 특히, 현지점의 한국 성인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매우 컸다.

아울러 일본의 어머니들과 같이 한국의 양육자가 가진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전체적인지 분석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편향성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관계 추론과 같은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도 거의 없다. 김미재(2024)의 학위 연구에서 3~5세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들의 장면 묘사 경향성과 자녀의 장면 묘사 경향성이 정적 상관관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 연구는 배경이나 전경 체에 대한 반복 언급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주의를 점화하였을 때, 주의 편향성이나 관계 추론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피는 것(예, Jurkat et

al., 2021)이 주목적이었으므로 기본적인 한국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기존 연구의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의 문화적 가치는 최근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김동노, 2023; 한규석, 신수진, 1999). 수직적 집단주의와 같이 사회적 위계를 중시하고 개인보다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조화를 가치롭게 여기던 문화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성취를 가치롭게 여기는 수평적 개인주의의 중시로 빠른 변화를 보여왔다(한규석, 신수진, 1999). 특히 14~20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관계 중심의 양육 가치보다는 개인의 독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양육 가치가 반영된 양육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윤혜령, 최영은, 2023). 이와 같은 문화적 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 현시점의 차세대 문화 전달자인 한국의 양육자는 기존 한국 문화가 중시하던 가치보다는 변화된 문화적 가치를 더 수용하고 이를 양육 행동과 더불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더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 18개월에서 36개월의 어린 자녀를 둔 한국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검토하여 기록하고자 하였다. 윤혜령과 최영은(2023)에서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독립과 자율의 가치를 반영한 양육 행동을 보인 것을 고려하여, 유아기부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인과관계 추론에서 중국과 미국 3세가 다른 양상을 보였기에(Carstensen et al., 2019; 2023) 3세 무렵의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문화적 가치와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고, 이러한 문화적 요인이 18~36개월 자녀의 인과관계 추론에도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검토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양육자가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고,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장면 묘사 과제를 실시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대로 한국 성인이 보인 전체적 주의 편향성과 사고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장면 묘사 과제는 어린 자녀에게 장면을 묘사하는 상호작용 맥락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자녀에게 특정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통해 문화적 편향성의 전달이 2~3세의 이른 시기부터 이뤄지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에 동반한 유아 자녀에게 선행연구에서 미국과 중국 유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동일한 관계 추론 과제(Carstensen et al., 2019)를 실시하여 어머니가 보인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자녀의 관계 추론 과제 수행 성공 여부와 직접적 관련성을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18~36개월 사이의 유아 105쌍이 참여하였다.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22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어머니-유아는 총 83쌍이었다. 유아는 남아 40명($M = 27.43$ 개월, $SD = 5.30$ 개월)과 여아 43명($M = 26.86$ 개월, $SD = 5.45$ 개월)이었다. 일본과 캐나다 어머니를 비교 연구한 Senzaki 등(2016)의 연구에서 각 집단에서 7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를 참고하여 대상자 수를 선정하였다. 모든 어머니는 실험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

을 들었으며,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자녀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도구 및 절차

어머니 문화적 가치 측정 설문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는 Singelis 외(1995)가 개발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통해 어머니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HC),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라는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평적 개인주의는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성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이룬다(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한다”). 수직적 개인주의는 경쟁을 통해 자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칭한다(예,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한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집단의 협력을 중시하는 성향을(예, “내가 속한 집단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집단 내 위계적 관계를 수용하고, 집단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을 측정한다(예, “나는 나의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 내 역할을 다해야 한다”)(Singelis et al., 1995).

설문은 문항 순서에 따른 편향(심형인, 2017)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이 동일하나, 순서가 다른 두 버전으로 제공되었다. 각 어머니는 그중 하나의 버

전을 제공받고 모든 문항을 1점에서 9점 사이로 응답하였다. 하위 척도의 점수 합계는 최소 9점에서 최대 72점까지 산출되며, 이를 문항 수(8)로 나누어 하위 척도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두 버전의 설문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0.759, 0.808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이 적절히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데이터를 10,000번 재표본화하여 두 신뢰도 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두 버전의 신뢰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1.00$, 95% CI [0.046, 0.052]). 이는 문항 순서 변경이 두 버전의 내적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버전을 동일 문항 기준으로 통합하여($\alpha = .780$)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머니 문화적 주의 편향성 측정: 장면 묘사 과제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Masuda와 Nisbett(2001)에서 사용한 장면 묘사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과제는 전경과 배경 요소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장면에 대해 일정 시간 묘사하도록 하고 참가자가 장면에 대한 언급한 내용을 기록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 자녀와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장면을 묘사할 수 있도록 유아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화면을 보면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장면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그림에는 눈과 입이 뚜렷이 보이고 몸통에 무늬, 지느러미가 있는 3~4마리의 큰 물고기(전경 요소)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다. 주변에는 수중 식물, 수중 생명체, 바닥, 물, 작은 물고기 등(배경 요소)이 전경 요소보다 작은 크기 또는 흐릿한 선명도로 위치해 전경 요소와의 대비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수중 식물’은 그림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한 개만 있거나, 좌우에 하나씩 위치하여 다른 동식물을 가리지 않는 수초, 해초, 산호초였다. ‘수중 생명체’는 그림에 따라 고동, 조개, 소라, 물방개, 새우, 개구리, 게, 장구벌레 중 2~4 종류로 나타났다. 그림의 하단은 갈색으로 어둡게 칠해 ‘바닥’을 나타냈고, 바탕은 청록색으로 표현하여 ‘물’을 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은 물고기’는 그림에 따라 다르게 생긴 물고기가 2마리씩 작은 크기로 그림의 뒤편에 흐릿하게 제시되어 중앙의 큰 물고기와 구분되게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그림들은 세부 요소의 색깔, 크기, 위치, 개수가 조금씩 다른 6장으로 준비되었고, 참가자들은 그중 하나의 그림을 무작위로 제시받았다. 그림 제시 후, 어머니들이 유아에게 30초간 그림에 대해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였고, 어머니의 발화는 녹음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은 Masuda와 Nisbett(2001)의 코딩 기준에 따라 최초로 언급한 대상이 전경인지 배경인지 분류하고, 전체 묘사에서의 전경 및 배경 요소를 분류하여 각 요소가 언급된 빈도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초 언급 대상은 어머니가 그림에서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에게 전달한 대상이 전경 정보인 경우 1을, 배경 정보이면 0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줄무늬 물고기 세 마리가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네.”라는 묘사에서는 전경 정보인 큰 물고기를 최초 언급되었기에 1점을 부여하였다. 반면, “바닷속에 줄무늬 물고기 세 마리가 헤엄치고 있네.”라는 묘사에서는 배경 정보인 바다(물)가 최초로 언급되어 0점을 부여하였다. 묘사에서 언급된 모든 요소(예, 줄무늬, 세 마리, 헤엄치다는 전경요소임)는 그림과 무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전경과 배경

요소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전경 요소에는 중앙에 제시된 큰 물고기들이 포함되었고, 배경 요소에는 다른 주변 생명체(예, 작은 물고기떼, 개구리, 소라, 수중 식물 등)와 배경(예, 물, 바닥 등)이 포함되었다. 각 대상에 대한 단순 묘사, 수 언급, 수식어, 행동 묘사, 위치 묘사, 다른 사물과의 관계 묘사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줄무늬 물고기 세 마리가 푸른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네.”라는 문장은 “줄무늬(수식어)”, “물고기(단순 묘사)”, “세 마리(숫자)”, “푸른(수식어)”, “바다(단순 묘사)”, “헤엄치다(행동 묘사)”로 코딩되었다. 이때, “줄무늬”, “물고기”, “세 마리”, “헤엄치다”는 전경 정보에 해당하기에 전경 정보를 4번 언급한 것으로, “푸른”, “바다”는 배경 정보에 해당하기에 배경 정보를 2번 언급한 것으로 산출하였다.

유아 인과관계 추론 능력 측정

유아의 관계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론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 과제는 Walker와 Gopnik(2014)에서 미국 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한 인과관계 추론 과제(causal Relational Match to Sample Task, cRMTS)와 동일하였다(그림 1 참조).

실험자는 유아의 맞은편에 앉아 흰색 상자(19cm × 19cm × 8cm)를 보여주며, 실험 조건에 따라 특정 블록 쌍을 상자 위에 올렸을 때 음악이 재생되도록 하였다. 실험 조건은 음악 재생의 원인이 같은 블록 쌍인 조건(같은 조건)과 블록 쌍의 모양과 색이 다른 조건(다름 조건)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실험은 4회의 관찰 시행과 1회의 검사 시행 순서로 진행되었다.

같은 조건에 참여한 유아는 관찰 시행 동안 실험자가 동일한 블록 두 개를 상자 위에 놓을 때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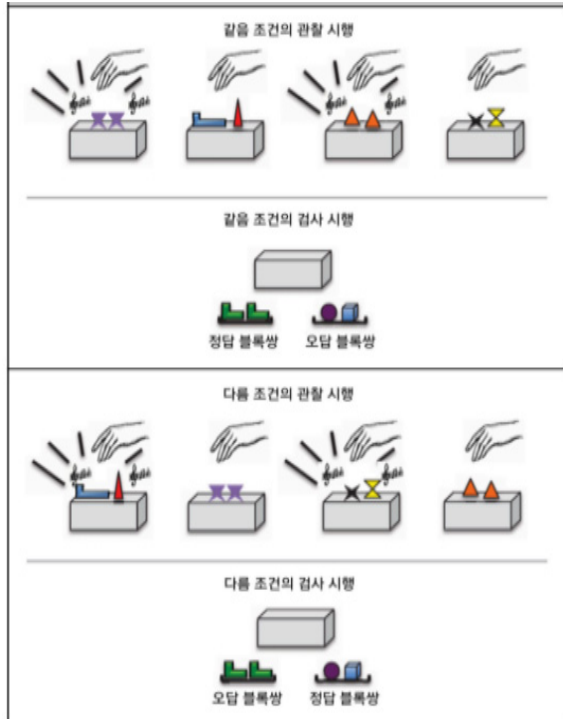


그림 1. 인과관계 추론 과제(cRMTS)의 조건별 실험 절차 (Walker & Gopnik, 2014)

이 재생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실험자는 이를 언급하며(“우와, 노래가 나오네! 노래가 나오네. 이 블록들은 내 장난감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네.”) 유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블록을 치우고 서로 다른 블록 두 개를 올렸을 때 음악이 재생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 뒤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노래가 안 나오네. 노래가 안 나와. 이 블록들은 내 장난감에서 노래가 안 나오게 하네.”). 2회의 관찰 시행 이후, 다른 블록 쌍들을 이용하여 노래가 나오는 조건과 아닌 조건을 2회 더 관찰하도록 하여 총 4회의 관찰 시행을 진행하였다.

관찰 시행이 끝나면, 실험자는 유아에게 서로 같은 블록 한 쌍과 서로 다른 블록 한 쌍을 동시에

제시하고 두 쌍 중 노래가 나오게 해 줄 블록 쌍을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검사 시행을 진행하였다. 이때 제시한 블록 쌍들은 관찰 단계에서 제시한 적이 없는 새로운 블록들이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면 관찰 시행 때 제시된 특정 블록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노래 재생의 원인이었던 블록 쌍의 관계를 추론하여야만 했다.

같은 조건에서는 유아가 검사 시행에서 동일한 블록 쌍을 선택하면 1점, 다른 블록 쌍을 선택하면 0점으로 기록하였다. 다른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블록 쌍을 선택할 경우 1점, 동일한 블록 쌍을 선택할 경우 0점으로 기록하였다.

유아 자녀 어휘 발달 측정

한국판 맥아더-베이트 의사소통발달평가(K-MCDI) 유아용(배소영, 광금주, 2011)을 통해 자녀의 어휘 발달 정도를 보고받았다. 이 검사는 생후 18~36개월 한국 유아의 어휘 수준과 문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이 인과관계 추론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어머니가 중시한 문화적 가치

INDCOL 척도의 하위 척도인 수평적 개인주의(HI), 수직적 개인주의(VI), 수평적 집단주의(HC), 수직적 집단주의(VC)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다음과 같았다. HI: $M = 6.18$, $SD = 0.97$, VI: $M = 5.11$, $SD = 0.98$, HC: $M = 6.40$, $SD = 1.14$, VC: $M = 5.03$, $SD = 1.03$.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한 결과, 하위 척도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고($F(3, 246) = 56.30, p < .001$), 모든 하위 척도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 < .05$, Tukey's HSD), 수평적 집단주의가 가장 중시되고 수직적 집단주의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주의($M = 11.44$)와 개인주의($M = 11.29$) 합산 평정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1, 82) = 0.521, p = .472$), 수평적 가치의 합산 평정 값은($M = 12.584$) 수직적 가치의 합($M = 10.146$)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성 충족 안되어 일측성 부호 순위로 검정한 결과, $V = 3391.5, p < .001, r = .82$).

다음으로 개인주의 척도와 집단주의 척도들의 점수의 합을 산출한 후, 두 점수 중 높은 척도의 점수를 기준으로 참가자의 문화적 경향성을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참가자 가운데 6%(5명)는 두 문화적 가치의 점수가 같았다. 반면 43.4%(36명)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집단주의적 가치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성($M_{\text{개인주의}} = 11.95, M_{\text{집단주의}} = 10.47$)을 보였다. 나머지 50.6%(42명)는 평균 1.56점 차이로 집단주의적 경향성($M_{\text{집단주의}} = 12.44, M_{\text{개인주의}} = 10.88$)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주의/집단주의 중시로 나눈 두 집단 간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1) = .46, p = .50$).

어머니 문화적 주의 편향성 분석

표 1은 어머니들이 최초로 언급한 대상과 전체 묘사에서 강조하였던 정보 유형에 따라 참가자들을 분류한 것이다. 83명의 어머니 가운데 71.1%는 전경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고, 나머지 28.9%는 배경

표 1. 최초 언급 대상 및 전체 언급 빈도에 따른 참가자 분포

	전경 강조	배경 강조	N
최초 언급 대상	59	24	83
전체 언급 빈도	25(10)	28(12)	53(75)

주. 괄호 안의 값은 51~58% 이내의 범위에서 전경/배경을 더 언급한 어머니들의 수.

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최초 언급 대상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전경을 언급한 어머니와 배경을 언급한 어머니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 = 14.76, p < .001$). 즉, 한국 어머니가 자녀에게 묘사해주는 장면에서 최초로 주의를 기울이고 언급한 대상은 전경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묘사에서는 어머니들이 전경 정보를 평균 8.82회($SD = 5.24$, 범위 = 0~22회) 언급하였으며, 배경 정보를 평균 7.88회($SD = 4.28$, 범위 = 0~18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표본 t-검정 결과, 배경 정보와 전경 정보의 전체 언급($M = 16.7, SD = 5.67$, 범위 = 3~29회)에서 전경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M_{\text{전경}} = 0.51, SD_{\text{전경}} = 0.23, t(82) = 0.33, p = .746$).

캐나다와 일본 어머니를 비교한 Senzaki와 동료들(2016)의 연구를 보면, 전체 묘사에서 캐나다 어머니는 전경을 59% 언급하였던 데 반해, 일본 어머니는 배경을 58% 정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조하여 배경 정보 언급 비율을 58%를 기준으로 어머니의 경향성을 분류한 결과, 83명의 어머니 중 53명이 전경이나 배경 요소 중 한 요소를 58% 이상 언급하여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경 정보를 더 많이 강조한 어머니는 25명($M_{\text{전경}} = 78.35\%, M_{\text{배경}} = 21.65\%$), 배경 정보를 더 강조한 어머니는 28명($M_{\text{전경}} = 27.73\%, M_{\text{배경}} =$

72.27%)이었다. 나머지 30명의 어머니 중 8명은 전경과 배경 요소를 동등한 횡수로 언급하였고, 10명은 전경 요소를 배경보다, 12명은 배경 요소를 전경보다 자주 언급하였으나 그 비율이 기준(58%)보다 적었다. 집단 간 분포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2) = .458, p = .795$).

어머니의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적 가치가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관계가 있었는지, 예컨대,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어머니들이 배경 언급량이 많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어머니들이 전경 언급량이 많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개인의 배경/전경 언급 빈도와 INDCOL의 4개 하위 척도 점수와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두 측정치 간에 유의한 상관은 관찰되지 않았다($r_s < .11, p_s > .38$). 집단주의 하위 척도의 합(HC+VC)과 개인주의 하위 척도의 합(HI+VI)에서도 전경/배경 언급량과 유의한 상관은 관찰되지 않았다(개인주의-전경 언급 : $r = .011, p = .921$; 집단주의-배경언급 : $r = -0.087, p = .432$).

어머니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자녀의 관계추론

어머니들이 보인 전체적/분석적 편향성의 개인차가 자녀의 인과관계 추론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체 언급 빈도에 따라 구분한 전경 강조 집단과 배경 강조 집단을 비교하였다. 정확 이항 검정(Exact Binomial test) 결과, 전경 정보를 강조한 어머니의 자녀는 관계 추론 수행 수준이 우연 수준(50%) 이상이었다(72%, $N = 25, p = .043$). 반면, 배경 정보를 강조한 어머니의 자녀의 관계 추론 수행 수준은 우연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46.4%, $N = 28, p = 1$).

최초 언급 대상에 따라 분류한 어머니 집단 자녀들의 관계추론 수행도 살펴본 결과, 전경 정보를 최초로 언급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약 62.71%가 성공적으로 정답을 선택하였고, 배경 정보를 최초로 언급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약 41.66%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두 집단의 정답률을 이항 검정한 결과, 전경 최초 언급 집단에서만 유의 수준에 근접한 경향성이 나타났다($p = .067$).

전경 강조 집단의 어머니들이 공유하는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녀의 성별, 평균연령, 어휘 수준이나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전경 강조 집단에 속한 자녀의 평균 연령은 25.16개월, 배경 강조 집단 자녀의 평균 연령은 30.43개월로 배경 강조 집단 유아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p = .0002$) 어머니 요인의 직접적 영향 외에 발달 단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다른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s > .05$).

자녀의 언어 발달과 관계 추론 능력

Hoyos 등(2016)에 따르면, 폭발적인 명사 습득은 일시적으로 관계적 사고 발달의 저해나 지연을 유발할 수 있는데, 구체적 개별 대상의 의미 습득이 중점이 되는 명사 습득 패턴이 물체 간 관계에 대한 처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30~48개월 아동은 더 어린 18~30개월 유아보다 관계 추론 과제에서 실패율이 높았다(Walker et al., 2016). 이런 발달 양상은 30개월 이후 급증하는 명사 습득 패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추가로, 명사와 같은 개별 어휘 습득의 급증과 달리 문법 수준의 발달은 문장 요소 간의 관계와 구조를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므로(배소영, 광금주, 2011), K-MCDI로 측정한 문법 수준의 개인차가 관계적 추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K-MCDI로 측정한 자녀의 표현 어휘와 문법 수준을 예측 변수로 투입하고, 관계 추론 수행 성공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X^2(2) = 6.37, p = .041$ 로), 표현 어휘와 문법 수준은 관계 추론 과제 수행 변동의 약 12.4%(Nagelkerke R^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 어휘 점수는 관계 추론 수행의 부정적 예측 변수로 나타났는데, $\beta = -0.0258, SE = 0.0124, z = -2.07, p = .038, OR = 0.97, 95\% CI [0.94, 1.00]$, 이는 표현 어휘 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관계 추론 성공 확률이 약 3%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 문법 점수는 관계 추론 수행의 긍정적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beta = 0.0293, SE = 0.0128, z = 2.28, p = .023, OR = 1.03, 95\% CI [1.00, 1.06]$. 이는 문법 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관계 추론 성공 확률이 약 3%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아동의 표현 어휘 습득이 많을수록 관계 추론 수행이 낮았고, 문법 이해가 높을수록 관계 추론 수행이 증가함을 시사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현시점 유아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를 자기보고식 척도로 살펴보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장면 묘사를 할 때 배경 정보에 중점을 둔 전체적 주의 편향성을 보이는지, 전경 정보에 중점을 둔 분석적 주의 편향을 보이는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먼저,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문화적 가치 척도(Singelis et al., 1995) 결과에 따르면 한국 어머니는 개인주의와 함께 수평적 집단주의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협력을 중시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 간 경쟁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수직적인 위계 관계에서의 집단주의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어머니들이 변화된 개인주의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조화도 여전히 가치롭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아 자녀에게 바닷속 장면을 설명해 주는 과제 수행에서는 최초로 강조하는 정보가 배경보다는 전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본 성인(Masuda, 2017; Masuda & Nisbett, 2001, 2006; Masuda et al., 2008)이나 일본 어머니(Senzaki et al., 2016)와 다른 패턴이었고, 기존 한국 성인의 연구 결과(Rhode et al., 2016; Tajima & Duffield, 2012)와도 달랐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반복해서 관찰된 전체적 주의 편향성이 아니라 캐나다 어머니(Senzaki et al., 2016)나 북미 성인들(Masuda, 2017; Masuda & Nisbett, 2001, 2006; Masuda et al., 2008)이 주로 보인 분석적 주의 편향성이 관찰된 것이다.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개인주의 문화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윤혜령, 최영은, 2023). 윤혜령

과 최영은(2023)은 어머니와 영아 자녀(14~20개월)의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는데,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스코틀랜드의 양육자들처럼(Ross et al., 2017) 한국 어머니도 원격 양육행동의 유형인 시선 교환, 언어적 교환을 더 많이 보여주었고, 집단주의 성향이 큰 짐바브웨 어머니들이 보여준 신체 접촉을 통한 지시나 촉진과 같은 근접 양육행동 방식을 드물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가치에서 점차 개인주의적 가치로 전환되었다는(김동노, 2023; 한규석, 신수진, 1999) 사회적 변화가 어머니들의 양육 방식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어 본 연구에서 관찰된 분석적 주의 편향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장면 묘사 과제에서 최초 언급과는 달리 전체 언급 빈도에서는 동일한 분석적 주의 편향성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시행한 과제 속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언급 빈도는 30초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제시된 장면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전부 반영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장면을 충실히 묘사하기 위해 장면 정보를 고루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Senzaki 등(2016)의 연구에서는 정지된 장면 묘사보다는 영상 제시 후 기억에 의존하여 묘사하게 하는 것 같은 과제를 이용하여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전체 언급 빈도는 최초 언급에 비해 특정 주의 편향성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정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종합하면, 현시점 어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는 개인주의 가치와 더불어 수평적 집단 관계에서의 조화를 중시하지만 문화적 주의 경향성에서는 개인주의와 맞닿아 있는 분석적 주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INDCOL척도(Singelis et al., 1995)로 측정한 문화적 가치는 장면 묘사 과제로 측정한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관련성을 전혀 보이지 않아 두 요인의 관계성의 해석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다른 측정치들을 통해 재검증해 볼 필요성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어린 유아 자녀에게 전달되어 관계 추론 수행 능력과 같은 인지적 추론 능력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전경 강조 집단 어머니의 자녀가 배경 강조 집단 어머니보다 관계 추론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여 나눈 집단의 자녀들이 월령에서 5개월 가까이 차이(25개월과 30개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관찰된 수행 차이는 전체 언급 빈도 기준으로 나눈 어머니의 경향 차이보다는 발달 단계에 따른 결과였을 가능성이 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초 언급과 달리 전체 언급은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뚜렷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발달 단계에 따른 관계 추론의 양상을 보고한 선행 연구를 보면(Carstensen et al., 2023; Walker et al., 2016; Walker & Gopnik, 2014), 관계 추론 수행은 18개월에서 30개월 이전까지의 영유아는 수행을 잘 하는데 반하여 30~36개월 유아의 수행은 일시적으로 저조해지는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Carstensen et al., 2023; Walker et al., 2016; Walker & Gopnik,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임의 집단 구분에 따른 결과는 어머니의 문화적 경향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30개월 이후 수행이 낮아지는 발달 단계에 따른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유아 자녀의 관계 추론 수행에는 어머니의 문화적 편향성보다는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였다. 표현 어휘 습득량이 많을수록 수행이 저하되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문법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관계 추론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 폭발적 명사 습득은 관계 추론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데(Hoyos et al., 2016; Carstensen et al., 2019),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가 관찰되었고, 기존에 검증된 바는 없으나 문장 내 요소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문법 수준은 관계 추론 수행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8~36개월 유아 시기에는 어머니의 문화적 편향성과 같은 외적 요인보다 유아 자신의 언어 발달 패턴과 같은 내적 요인이 관계 추론 수행과 더 밀접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문화적 가치나 편향성 전달의 경우, 선행연구들에서도 뚜렷하게 전달 양상이 관찰된 것은 자녀가 4세 이후일 때인 것으로 나타나(범지민, 최영은, 2020; Imada et al., 2013; Senzaki et al., 2016) 본 연구에서 검토한 초기 발달 시기에는 아직 양육자의 문화적 편향성이 자녀의 주의나 인지적 처리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문화적 가치나 편향성의 전달은 일정 기간의 노출을 통해 축적되고 내재화되어야 하므로 2~3세의 발달 시기에는 아직 이러한 축적과 내재화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어머니의 장면 묘사의 첫 언급에서 분석적 주의 편향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 결과와 달라 문화적으로 달라진 주의 편향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유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영아 시기 주로 관찰된 원격 양육 행동의 사용(윤혜령, 최영은, 2023)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록 유아의 인지 추론 과정에서 양육자의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지지는 못할지라도 문화 전달자로서 한국 어머니는 자녀가 영아인 시기부터 본인의 문화적 경향성을 반영한 상호작용을 하여 문화 가치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향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이렇게 변화된 가치가 어머니와 자녀의 지속적 상호 작용에서 일관되게 반영되고 있는지이다. 일관되게 전달되고 있다면 문화 요인에 따라 다양한 발달 영역(예, 자기 인식 능력 발달, 관계 유추 능력 등)에서 변화를 견인할 가능성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5세 무렵부터 존댓말 습득, 사용이나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절은 여전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덕목으로서 이러한 영향이 한국 5세 아이들이 캐나다 5세 아이들과 달리 틀린 정보를 주로 제공했던 성인을 여전히 신뢰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요인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범지민, 최영은 2020; Oh et al., 2024).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경험이 축적되고 내재화된 아동기에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자녀의 주의 편향성 형성에도 주요 역할을 하는지, 이를 통해 관계 추론 수행과 같은 인지적 처리에도 영향을 행사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록 측정치의 제한점이 컸으나 본 연구는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와 주의 편향성 자료를 최초로 마련하고, 한국 사회문화의 변화(김동노, 2023; 한규석, 신수진, 1999)와 더불어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가치도 다각적으로 변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변화된 가치와 문화적 편향성

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문화 전달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이른 시기 부터 작용하고 있음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발달 초기에는 문화적 요인과 같은 외재적 요인에 비해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과 같은 내재적 요인의 영향이 좀 더 가깝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동노 (2023).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 한국 사회의 변화. **사회이론**, 63, 153-196.
- 김미자 (2024). **한국 아동의 관계 추론 발달에서 언어와 문화적 영향**. 국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https://doi.org/10.23169/cau.000000240685.11052.0000575>
- 배소영, 광금주 (2011).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 발달평가(K MB CDI)**. 서울: 마인드프레스.
- 범지민, 최영은 (2020). 한국 아동의 선택적 신뢰 발달: 5 세 아동이 4 세와 달리 정보제공자의 연령을 정확도보다 중시할 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1), 53-64.
- <https://doi.org/10.35574/KJDP.2020.3.33.1.53>
- 심형인 (2017). 설문조사에서의 질문문항순서 및 선택지순서 효과: 한국문화 측정 문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145-169.
- 10.18333/KPAR.51.1.145
- 윤혜령, 최영은 (2023). 문화에 따른 양육방식: 한국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서 주로 나타난 원격 양육행동 패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6(4), 83-101.
- <https://doi.org/10.35574/KJDP.2023.12.36.4.83>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Carstensen, A., Kim, M., Kim, G., Jin, M., Kang, M., Choi, Y., & Walker, C. M. (2023). Relational abstraction in early childhood: Three cultures and three trajectories.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45(45).
- <https://escholarship.org/uc/item/17p5h56j>
- Carstensen, A., & Walker, C. M. (2017). The paradox of relational development is not universal: Abstract reasoning develops differently across cultures.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39.
- <https://escholarship.org/uc/item/0m82j4vz>
- Carstensen, A., Zhang, J., Heyman, G. D., Fu, G., Lee, K., & Walker, C. M. (2019). Context shapes early diversity in abstract though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6(28), 13891-

13896.
<https://doi.org/10.1073/pnas.1818365116>
- Chua, H. F., Boland, J. E., & Nisbett, R. E. (2005). Cultural variation in eye movements during scene percep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2(35), 12629-12633.
<https://doi.org/10.1073/pnas.0506162102>
- Hoyos, C., Shao, R., & Gentner, D. (2016). The paradox of relational development: Could language learning be (temporarily) harmful? *CogSci*.
- Imada, T., Carlson, S. M., & Itakura, S. (2013). East - West cultural differences in context sensitivity are eviden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Science*, 16(2), 198-208.
<https://doi.org/10.1111/desc.12016>
- Jurkat, S., Gruber, M., & Kärtner, J. (2021). The effect of verbal priming of visual attention styles in 4-to 9-year-old children. *Cognition*, 212, 104681.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21.104681>
- Kuwabara, M., & Smith, L. B. (2012).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ognitive development: Attention to relations and objec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3(1), 20-35.
<https://doi.org/10.1016/j.jecp.2012.04.009>
- Masuda, T. (2017). Culture and attention: Recent empirical findings and new directions in cultural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12), e12363.
<https://doi.org/10.1111/spc3.12363>
- Masuda, T., Gonzalez, R., Kwan, L., & Nisbett, R. E. (2008). Culture and aesthetic preference: Comparing the attention to context of East Asians and Americ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9), 1260-1275.
<https://doi.org/10.1177/0146167208320555>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922.
<https://doi.org/10.1037/0022-3514.81.5.922>
- Masuda, T., & Nisbett, R. E. (2006). Culture and change blindness. *Cognitive science*, 30(2), 381-399.
https://doi.org/10.1207/s15516709cog0000_63
- Miyamoto, Y., Nisbett, R. E., & Masuda, T. (2006). Culture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Holistic versus analytic perceptual affordances. *Psychological science*, 17(2), 113-119.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6.01673.x>
- Oh, J., Ju, N., Graham, S., & Choi, Y. (2024). Cultural divergence in children's selective word learning: Korean and Canadian children differ in their trust of adult informants. *Social Development*, 33(1), e12707.

- <https://doi.org/10.1111/sode.12707>
- Rhode, A. K., Voyer, B. G., & Gleibs, I. H. (2016). Does language matter? Exploring Chinese - Korean differences in holistic perception. *Frontiers in psychology*, 7, 1508.
<https://doi.org/10.3389/fpsyg.2016.01508>
- Rogoff, B. (2003). *The cultural nature of human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 J., Yilmaz, M., Dale, R., Cassidy, R., Yildirim, I., & Suzanne Zeedyk, M. (2017). Cultural differences in self recognition: The early development of autonomous and related selves?. *Developmental Science*, 20(3), e12387.
<https://doi.org/10.1111/desc.12387>
- Senzaki, S., Masuda, T., & Ishii, K. (2014). When is perception top down and when is it not? Culture, narrative, and attention. *Cognitive Science*, 38(7), 1493-1506.
<https://doi.org/10.1111/cogs.12118>
- Senzaki, S., Masuda, T., Takada, A., & Okada, H. (2016). The communication of culturally dominant modes of atten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a comparison of Canadian and Japanese parent-child conversations during a joint scene description task. *PloS one*, 11(1), e014719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47199>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https://doi.org/10.1177/106939719502900302>
- Tajima, Y., & Duffield, N. (2012). Linguistic versus cultural relativity: On Japanese-Chinese differences in picture description and recall. *Cognitive Linguistics*, 23(4), 675-709.
<https://doi.org/10.1515/cog-2012-0021>
- Walker, C. M., Bridgers, S., & Gopnik, A. (2016). The early emergence and puzzling decline of relational reasoning: Effects of knowledge and search on inferring abstract concepts. *Cognition*, 156, 30-40.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16.07.008>
- Walker, C. M., & Gopnik, A. (2014). Toddlers infer higher-order relational principles in causal learning. *Psychological science*, 25(1), 161-169.
<https://doi.org/10.1177/0956797613502983>
- Varnum, M. E., Grossmann, I., Kitayama, S., & Nisbett, R. E. (2010). The origin of cultural differences in cognition: The social orientation hypothesi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9(1), 9-13.
<https://doi.org/10.1177/0963721409359301>

Korean Mothers' Cultural Mode of Attention in Mother-toddler Interactions

Jaehyeon Kim¹

Youngon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M.A. student¹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²

Adults raised in East Asian cultures exhibit holistic attentional biases, focusing more on contextual information such as the background, compared to adults from North American cultures, who prioritize the foreground. Caregivers were observed to transmit these biases to the children. This study explored the cultural tendencies and attentional biases of caregivers in the rapidly changing Korean cultural context, and whether these tendencies and biases influenced the relational reasoning performance of their children aged 18 to 36 months. Analyses of 83 mothers showed that Korean mothers valued both individualism and horizontal collectivism but they emphasized the foreground over the background in scene descriptions, reflecting analytic attentional biases. However, no apparent influence of maternal cultural tendencies was observed in their child's relational reasoning performance, suggesting that cultural influences may not yet play a direct role in development at this early stage.

Keywords : Cultural Attentional Bias, Cultural Tendency, Causal Relational Reasoning, Mother-toddler Interaction